

COVID-19 팬데믹과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

- 2020년도 초·중등학교의 진로체험, 진로상담, 창업체험 등 대면 중심의 진로활동 참여율이 2019년도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진로정보 습득 매체의 경우 학생들은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비율이 더욱 증가하고, 교사는 비대면 진로상담을 실시하는 비율이 높아졌음.
- 2020년도 초·중등학생의 진로개발역량(자기이해와 사회성, 직업이해, 진로탐색, 진로설계와 준비도)과 진로교육 만족도는 2019년에 비해 감소하였음.
- 학교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온·오프라인 연계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며, 그에 따른 '전문성 있는 진로교육 인력 확보 및 역량제고'가 필요한 가운데, 진로정보 습득 매체의 변화에 부합한 정보의 형식 변화도 필요함.

01 분석의 필요성 및 분석 자료

| 초·중등학교, 교원, 학부모 및 학생들의 진로교육 관련 인력, 시설, 프로그램, 인식 및 요구 사항 등 학교 진로교육의 현황 파악과 분석이 필요함.

- 자유학년·학기제, 진로교육 집중 학년·학기제 등 초·중등학생의 진로탐색과 진로설계를 지원하는 다양한 진로교육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
 - 한편, 2020년 초부터 지속되고 있는 COVID-19로 인해 학교 및 학생들이 진로교육에 있어서 변화된 환경에 처해 있게 되었고 새로운 방식들도 도입됨.
- 이에 따라, COVID-19를 전후로 한 2019년/2020년의 초·중등학교 진로교육 현황을 비교·분석하고 이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 분석 자료: 교육부·한국직업능력연구원, 「2020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원자료

- 분석 대상: 초·중·고 1,200교의 학생, 학부모, 교원 총 42,088명
 - 학생은 23,223명(초6: 6,352명, 중3: 8,339명, 고2: 8,532명), 학부모는 16,065명
 - 교원은 2,800명(학교관리자: 1,200명, 진로전담교사: 1,200명, 담임교사(고): 4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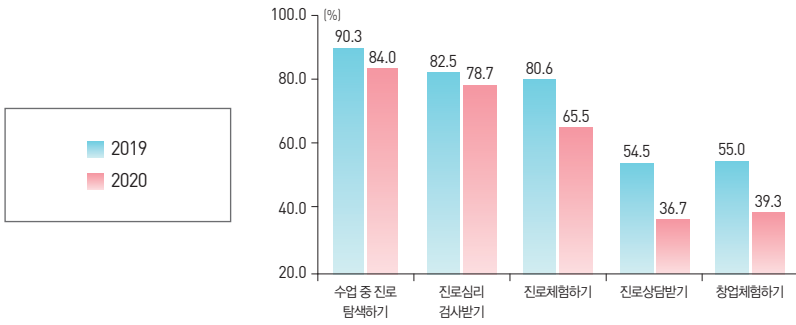
02 학교 진로활동 참여 현황

| 2020년도 활동 중심의 진로교육인 진로체험, 진로상담, 창업체험 비율이 2019년에 비해 크게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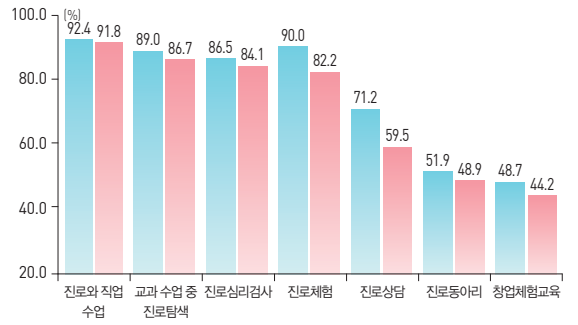
- COVID-19 이후로 학생들과 함께 하는 교실 수업이 제한되고, 온라인 수업의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초·중등 학교 전반적으로 2020년도의 진로활동 참여율이 2019년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주로 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하는 진로체험, 진로상담, 창업체험 등의 감소 폭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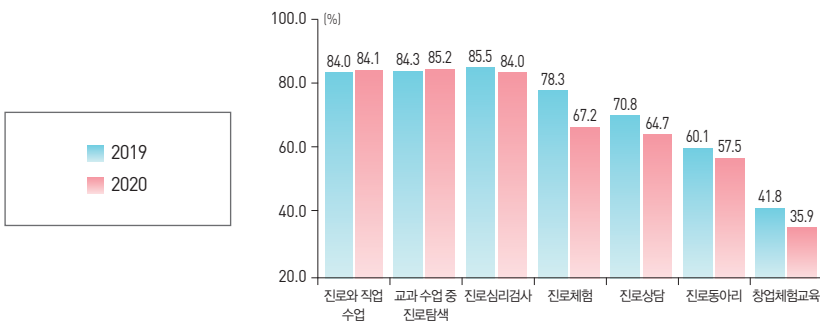
- 학교에서 학부모 대상의 진로교육은 주로 연수나 특강 등으로 진행되는데 2020년에는 COVID-19의 영향으로 초등학교 27.5%→20.6%, 중학교 27.5%→18.7%, 고등학교 31.6%→21.7%로 전년 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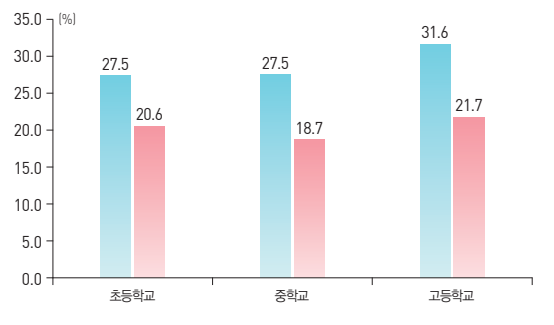
[그림 1] 학교 진로활동별 학생 참여율(초등학교)



[그림 2] 학교 진로활동별 학생 참여율(중학교)



[그림 3] 학교 진로활동별 학생 참여율(고등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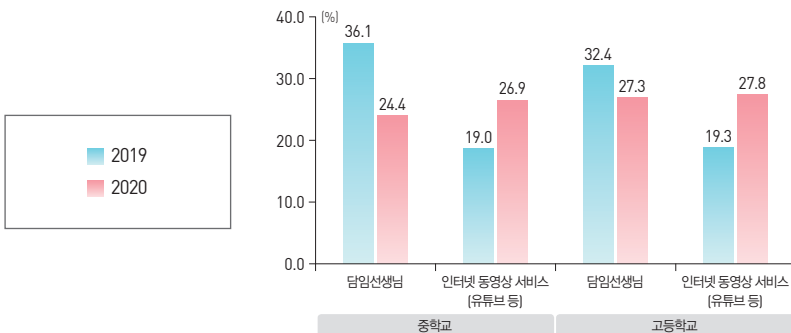


[그림 4] 학부모의 진로연수 및 특강 참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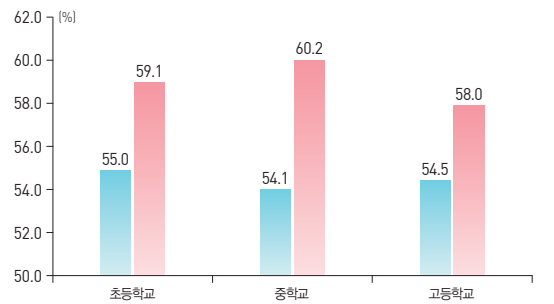
03 진로정보 습득·제공 방식 현황

| 중등학생들의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진로정보 습득 비율이 증가함.

- 중등학생의 경우 진로정보 제공에서 온라인 매체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추세를 보여온 가운데 2020년의 경우엔 담임교사로부터 진로정보를 습득하는 비율이 더욱 크게 감소하고, 인터넷 동영상 활용하여 정보를 습득하는 비율은 크게 증가함.
 - 중학교의 경우 담임교사로부터 진로정보를 습득하는 비율은 36.1% → 24.4%로 감소한 반면, 인터넷 동영상을 활용하는 비율은 19.0% → 26.9%로 증가함.
 - 고등학교의 경우 담임교사로부터 진로정보를 습득하는 비율은 32.4% → 27.3%로 감소한 반면, 인터넷 동영상을 활용하는 비율은 19.3% → 27.8%로 증가함.
- 학부모의 경우 자녀의 진로지도를 위해 드림레터, 팟캐스트 등과 같은 온라인 진로정보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
 - 초등학교 학부모는 55.0%→59.1%, 중학교는 54.1%→60.2%, 고등학교는 54.5%→58.0%로 온라인 진로정보에 대한 요구도가 높아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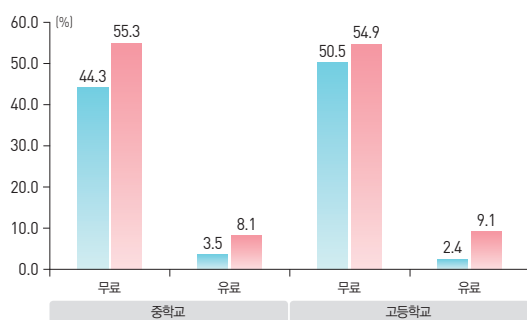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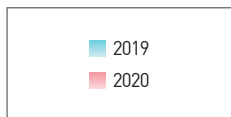


[그림 5] 진로정보 주요 획득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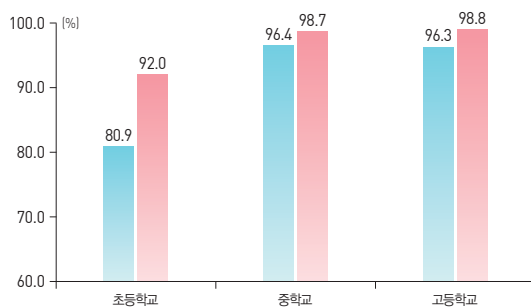


[그림 6] 학부모 온라인 진로정보 요구도

- **중등학교 교사들의 온라인 진로심리검사 실시 비중이 증가함.**
 - 중학교의 경우 온라인 무료 검사를 실시하는 비율은 44.3% → 55.3%, 온라인 유료 검사를 실시하는 비율은 3.5% → 8.1%로 증가함.
 - 고등학교의 경우 온라인 무료 검사를 실시하는 비율은 50.5% → 54.9%, 온라인 유료 검사를 실시하는 비율은 2.4% → 9.1%로 증가함.
 - COVID-19의 영향으로 학교 비대면 수업이 증가하면서 교사들의 온라인 진로심리검사 활용도가 증가함.
- **초·중등학교 교사들의 진로정보망 커리어넷 활용 비중이 증가함.**
 - 초등학교는 80.9% → 92.0%, 중학교는 96.4% → 98.7%, 고등학교는 96.3% → 98.8%로 교사의 커리어넷 활용 비중이 높아짐.
 - 특히 초등학교 교사는 원격 수업의 증가로 인해 초등학교 대상의 진로교육 콘텐츠(동영상 등)를 활용하는 비중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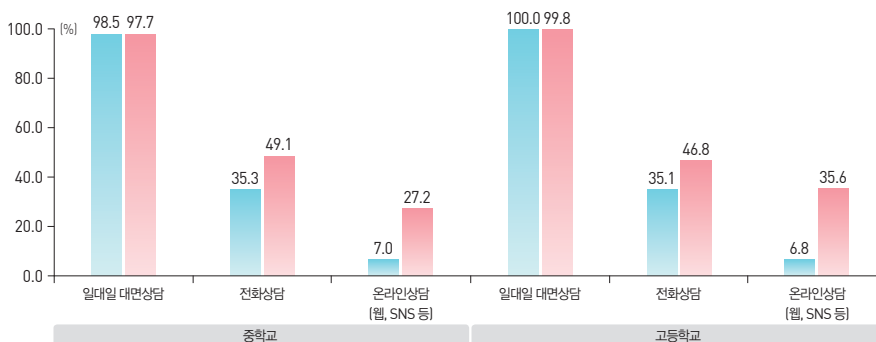


[그림 7] 온라인 진로심리검사



[그림 8] 커리어넷 활용비중

- **중등학교 교사들의 경우 전화상담이나 온라인 상담과 같이 비대면으로 진로를 상담하는 비율이 전년 대비 증가함.**
 - 중학교의 경우 학생 대상으로 전화상담을 실시하는 비율은 35.3% → 49.1%, 온라인 상담을 실시하는 비율은 7.0% → 27.2%로 크게 증가함.
 - 고등학교의 경우 학생 대상으로 전화상담을 실시하는 비율은 35.1% → 46.8%, 온라인 상담을 실시하는 비율은 6.8% → 35.6%로 크게 증가함.



[그림 9] 학생 진로상담 실시방식

04 학생의 진로개발역량과 만족도

| 자기이해와 사회성, 직업 이해, 진로탐색, 진로설계와 준비도를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진로개발역량이 전년도에 비해 하락함.

- 초등학교의 진로개발역량은 4.21점 → 4.00점으로 하락하였고, 중학교의 진로개발역량은 4.02 → 3.87점으로, 고등학교의 진로개발역량은 3.89점 → 3.76점으로 하락함.

- 특히, 초등학교 진로탐색, 진로설계와 준비도 영역에서 각각 0.29점, 0.25점으로 가장 많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표 1〉 학교급별 진로개발역량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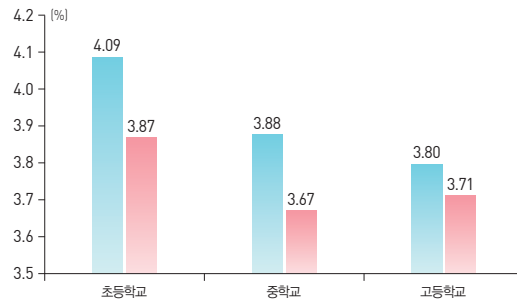
(단위: 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019	2020	2019	2020	2019	2020
자기이해와 사회성	4.44	4.27	4.17	4.04	4.09	3.96
직업이해	4.35	4.19	3.92	3.79	3.87	3.70
진로탐색	3.89	3.60	4.03	3.91	3.76	3.62
진로설계와 준비도	4.11	3.86	3.88	3.70	3.81	3.73
전체	4.21	4.00	4.02	3.87	3.89	3.76

주

1) 진로개발역량은 초등학교 20문항, 중학교 20문항, 고등학교 2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척도(①전혀 그렇지 않다 ~ ⑤매우 그렇다)로 측정된 평균임.

- COVID-19 이후 비대면 수업의 영향으로 진로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감소하였음.
 - 초등학생의 전반적인 진로교육 만족도는 4.09점 → 3.87점, 중학생은 3.88점 → 3.67점, 고등학생은 3.80점 → 3.71점으로 감소하였음.



[그림 10] 학교 진로교육 만족도

05 시사점

- COVID-19로 인하여 학교 수업을 온·오프라인으로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온·오프라인을 결합한 다양한 방식의 진로교육 수업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이 시급함.
- 또한 비대면 온라인 형식의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인력 확보, 진로 전담교사의 ICT 역량 강화 등 변화하는 환경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함.
- 학생, 교사, 학부모 등 대상별로 진로정보를 습득하고 제공하는 방식을 고려하여 맞춤형 진로정보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음.
- 학교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문성 있는 인력 확보, 진로교육 관련 예산과 환경 지원, 진로교육 확대를 위한 교육과정 및 수업 개선, 진로교육 자료 및 정보 확충 등이 필요함을 시사함.

김민경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전문연구원)
 김나라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전문연구원)
 박나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방혜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전문연구원)